

KCC 아까운 1승 오심으로 날렸다

같은 상황 다른 적용... 인삼공사전서 페이크 반칙 이후 페널티 적용

판정은 일관성이 매우 중요하다. 공정한 룰 안에서 경쟁하는 스포츠라면 더 그렇다.

최근 프로농구에서 같은 상황에 페널티를 다르게 적용해 특정 팀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나왔다.

전주 KCC는 지난 19일 전주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인삼 KCC인삼공사와의 경기에서 접전 끝에 78-81로 패했다.

4쿼터 종료 1분2초를 남기고 결승점이 나왔다.

인삼공사는 78-78 동점에서 데이비드 사이먼의 패스를 한희원이 골밑 득점으로 연결했다.

삼관은 이와 동시에 사이먼을 수비하던 라이온스에게 페이크 반칙을 줬다. 고의적으로 넘어뜨리는 판정이다.

페이크 반칙은 상대에게 반칙을 유도하

기 위한 과도한 몸동작을 취할 경우, 출수 있다. 시뮬레이션 액션과 같은 의미다.

한 팀의 2번째 페이크 반칙부터 테크니컬 반칙이 부과된다.

라이온스는 2번째 페이크 반칙으로 테크니컬 반칙을 받았고 인삼공사는 자유투 1개를 추가로 얻었다.

81-78로 달아난 순간이다. 공격권은 다시 인삼공사가 가졌다. 이날 경기는 인삼공사의 81-78 승리로 끝났다.

그러나 22일 울산 모비스와 부산 kt의 부산 경기에선 똑같은 상황에 다른 페널티를 적용했다.

kt는 2쿼터 종료 50초를 남기고 허버트 힘이 박지훈의 돌파에 이은 패스를 받아 2점슛을 성공했다.

삼관은 박지훈의 돌파 과정에서 충돌이 있었던 마커스 블레이클리(모비스)에게

페이크 반칙을 줬다. 역시 2번째로 테크니컬 반칙과 함께 자유투를 줬다.

kt는 3점 플레이에 성공했다. kt의 전반 득점은 20점.

그런데 후반에 들어가면서 kt의 득점이 27점으로 수정됐다. 블레이클리의 페이크 반칙 때 있었던 힘의 득점을 취소한 것이다.

전반 종료 후, 힘의 득점을 인정해선 안 된다는 삼관의 결정이 있었다. 힘의 득점보다 블레이클리의 페이크 반칙이 먼저였기 때문에 자유투만 인정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22일 경기의 페널티 적용이 옳다면 KCC는 19일 결승점을 삼관의 잘못된 페널티 적용으로 내준 셈이다. 한희원의 2득점은 인정되지 않아야 하고, 자유투 1점과 공격권만 뺐으면 된다.

1초 이내에서 승부가 갈릴 수 있는 농구에서 종료 1분여를 남기고 1점 차와 3점 차는 하늘과 땅 차이이다. 막판 양 팀의 경기 운영을 바꿔놓은 장면이다.

KBL 관계자는 "22일 경기의 페널티 적용 수정이 옳았다. 19일 경기는 잘못된 것이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두 경기 모두 처음에 잘못된 적용이었다"며 "19일 경기는 4쿼터 막판에 이런 상황이 나와 (오류를)인지한 시점이 경기 종료 이후였다. 정정할 수 없었다. 양 팀이 경기 후에 사인을 하면 수정이 불가능하다. 어제 경기에서 kt의 점수를 수정한 것은 하프타임에 인지하고, 수정이 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고 했다.

KCC-인삼공사 경기 이후에 삼관부 내부에서도 이와 관련한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KBL은 해당 삼관들을 재정위원회에 회부해 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김민근기자



SES, 14년 만에 재결합... 프로젝트 '리멤버'

1990년대 후반을 풍미한 걸그룹 'S.E.S.'가 14년만에 재결합, 프로젝트 '리멤버'를 펼친다.

23일 SM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1997년 데뷔해 내년 20주년을 맞는 S.E.S.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음원, 공연, 앨범, 리얼리티 프로그램 등 다양한 형태로 팬들과 가깝게 만난다.

'리멤버'의 첫 시작은 SM의 음원 플랫폼 '스테이션'이다. S.E.S. 데뷔일인 28일 0시 '러브 [스토리]' 음원을 발표하며 이번 프로젝트의 시작을 알린다.

'러브 [스토리]'는 SM 대표 작곡가 유영진과 유한진이 S.E.S.의 히트곡 '러브'를 재해석한 곡이다. S.E.S.의 또 다른 히트곡인 '아임 유어 걸(I'm your girl)'과 새로운 랩 구성이 추가된 매시업 사운드가 감성 포인트다.

또 S.E.S.는 오는 12월 30~31일 세종대학교 대강홀에서 단독 콘서트 '리멤버, 더 데이'를 펼친다. 내년 1월2일 스페셜 앨범도 발매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번 S.E.S.의 데뷔 20주년 기념 프로젝트는 리얼리티 프로그램 '리멤버 - 아임 유어 S.E.S.'로도 제작, 12월 5일부터 순차적으로 SK 모바일 동영상 애플리케이션 옥수수(oxusu)에서 캠페인을 준비하는 멤버들의 모습을 담은 리얼리티 영상을 만나볼 수 있다.

/뉴시스

피겨여왕 김연아, '스포츠영웅' 명예의전당 헌액

역대 9번째... "한국 스포츠 발전에 헌신할 것"

'피겨여왕' 김연아(26)가 역대 9번째로 대한체육회가 선정한 '스포츠영웅' 명예의 전당에 헌액됐다.

김연아는 23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2016년도 스포츠영웅 명예의 전당 헌액식에 참석해 스포츠 영웅에 이름을 올렸다.

대한체육회는 지난달 스포츠영웅 선정 위원회를 열고 밴쿠버 동계올림픽과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각각 금메달과 은메달을 획득한 김연아를 2016년도 스포츠 영웅으로 선정했다.

이날 헌액식에서 김연아는 "그동안 스포츠 영웅들은 원로였는데 아직은 어린 내게 스포츠 영웅이라는 칭호를 주셔서 영광스럽고 과분하게 생각한다"며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많은 내게 값지게 살아가려는 격려와 응원으로 여기고 한국 스포츠 발전에 헌신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얼마 남지 않은 2018 평창동계 올림픽 홍보대사이자 집행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 자리까지 오르게 한 피겨스케이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기여하고 싶다고 다짐했다."

김연아는 자신을 따라 피겨 선수의 길을 가고 있는 후배 선수들에 대한 관심과 애정도 드러냈다.

그는 "나를 이어 또 다른 피겨 스타가

나올 수 있도록 후배들을 지원하겠다"며 "많은 후배들이 이 자리에 함께 했는데 훈련도 많이 하는 후배 선수들에게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연아는 착박한 국내 피겨스케이팅 환경에서 세계 최고의 선수로 성장했다. 주니어 시절부터 국제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한국 동계스포츠에 새 길을 열었다.

이후 세계선수권 우승과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여자 싱글 사상 최고점인 총점 228.56점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은퇴무대를 반복하고 출전한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에서는 관중 논란 속에서도 은메달을 차지했다.

체육회 스포츠영웅 선정위원회는 지난 8월초부터 한달여간 일련된, 추천단(40명), 체육단체(96명), 출입기자(29명)를 대상으로 선수 및 지도자 41명, 체육발전 공헌자 13명 등 총 54명을 추천받았다.

스포츠영웅 선정위원회와 심사기자단(29명)은 후보자 54명 중에서 2차 심사, 추천을 거쳐 최종 6명의 후보자를 추렸다.

이어 김연아는 '박지훈'의 김일 원로, '골프여왕' 박세리, '코리아특급' 박찬호, '이길용 체육기자', '축구영웅' 차범근 등 경쟁한 후보를 제치고 스포



피겨스케이팅 전 국가대표 김연아가 23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2016 스포츠영웅 명예의 전당 헌액식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츠영웅에 최종 선정됐다.

창립 100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는 체육회는 전 세계에 한국을 알리고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준 체육인을 국가적 자산으로 예우하기 위해 2011년부터 스포츠 영웅을 선정해왔다.

김연아는 역대 9번째로 명예의 전당에 헌액된 스포츠 영웅이다.

2011년 마라톤계 허영민 원로와 역도의 허갑필 원로를 선정했으며, 2013년에는 보스톤마라톤을 제패한 서

윤복 원로가 뽑혔다.

2014년에는 스포츠 근대화의 토대를 이룬 '故' 민관식 원로와 함께 세계 최초 레슬링 플라이급 세계선수권자인 장창선 선수가 명예의 전당에 헌액됐다.

이어 2015년에는 광복 이후 최초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양정모 원로, 한국 여자농구의 살아있는 전설 박신자 원로, 스포츠외교의 거장 김운용 원로 등 총 8명이 추가됐다.

/김민근기자

'젝스키스' 16년 전 히트곡 2016 버전으로 재탄생

1세대 아이돌 그룹 '젝스키스'의 16년 전 히트곡이 2016년 버전으로 재탄생한다.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젝스키스'가 16년 만에 선보이는 새 음반 '2016 리-앨범(Re-Album)'이 12월1일 발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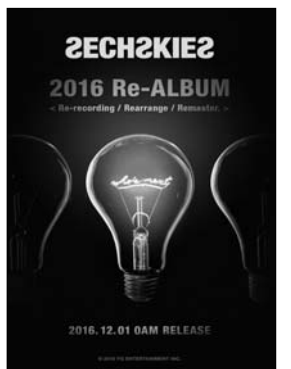
'젝스키스'의 과거 히트곡 10곡을 엄선해 새 버전으로 다시 탄생시킨 앨범이다. 리-레코딩(Re-recording), 리어 렌지(Rearrange), 리마스터(Remaster)를 내세웠다.

YG는 "말 그대로 '젝스키스'의 예전 히트곡들을 YG 프로듀서들이 최신 스타일로 재편곡하고 멤버들이 다시 녹음을 및 믹싱과 마스터링까지 거의 모든 과정을 새롭게 거친 앨범"이라고 소개했다.

이번 앨범은 16년만인 지난 9월 콘서트를 펼친 '젝스키스' 멤버들의 무대를 지켜본 양현석 YG 대표 프로듀서의 제안으로 시작했다.

앞서 '젝스키스'는 지난달 7일 16년 만의 신곡 '세 단어'로 음원차트 1위부터 차지한 바 있다. 과거 13곡의 대표 활동곡이 음원차트 100위 안에 진입, '차트 여주행'을 기록하기도 했다.

/뉴시스



위대한 체·인·지의 시작

태권도원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태권도 교육, 체험, 수련, 문화교류의 장
<http://www.tkdwon.kr>

태권도원 - 우리 세대에 우리가 만든 세계문화유산

올림픽 단일종목으로는 최초로 국제경기, 체험, 수련, 교육, 연구, 교류 등 태권도에 관련된 모든 것이 가능한 세계 유일의 태권도 전문공간입니다.

또한 전 세계인이 태권도를 통해 한국을 느끼고 한국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시대의 살아있는 세계문화유산입니다.

Taekwondowon
THE GREAT CHANGE

태권도원

전북 무주군 설천면 무설로 1482 / 063) 320-0114